## 은평 토박이로 사라진 기억을 기록하고 있어요

□ 인터뷰이: 공인희(영상기록팀)

□ 인터뷰어: 이미혜(기록수집팀)

□ 인터뷰 날짜: 2022년 8월 6일

□ 장소: 페이퍼백 사무실

## Q.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인스타그램 검색을 보다가 '여기은평' 채널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은평구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은평구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까 궁금하기도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다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몇 명은 도슨트 같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전시회에 참여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그림팀도 따로 있고 기획팀 따로 있고 영상팀 따로 있고 인터뷰하시는 분들, 다 따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어느 그룹에 들어가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평소에 사진이나 영상 찍는 거 좋아해서 영상팀으로 들어갔어요.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지금 반전의 길을 가고 있긴 하지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 이런 거 취미로만 해봤지 물론 지금도 아마추어로 시민으로 아카이빙에 도전하고 있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전시회 뭔가 작품이 걸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레고 전문가들이나 할 일인데 내가 하고 있으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요.

Q. 실습워크숍이 절반 정도 지났는데, 이 교육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했을 때 처음 생각했을 것에 비해 비해 아키비스트에 대해 새롭게 발견하거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처음에 그냥 같이 다 하는 줄 알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뽑으시는 줄은 모르고 몇 명만

은평구에 오래 살던 정말 토박이들 위주로 골라서 시민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협업하듯이 준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모여서 같이 은평구에 대해서 조사하고 공부하고 이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워낙 예전부터 그냥 핸드폰으로 은평구를 많이 기록하고 사진 찍고 다니는 거 좋아해서 영상기록팀으로 지원한 거였어요. 이번에 그렇게 영상 찍고 사진을 찍고, 더 깊숙이 알게 되었어요. 은평구 토박이라고 해도 다알지 못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몰랐던 색다른 모습들을 많이 봐서 굉장히 또다른 경험이었고 영상팀 들어오면서 이런 작업을 해서 뿌듯함도 느끼고 있어요. 은평구를 좀 더 알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 Q 기록을 만들고 수집하고 모으는 일에 대한 본인만의 루틴이 있나요?

평소에도 일 끝나고 휴무 때나 시간이 좀 이르게 끝났을 때 이럴 때 산책 많이 해요. 규칙적으로 산책하는 거 아니고 의식의 흐름대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같은 길로 다시 오고, 이 길을 갈까 한번 이 길 가볼까 저 길 가볼까 그러다가 발견되는 새로운 것들을 찍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거기에 맞춰서 자연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아름답고 예쁘면 그런 것들 바로 영상 남기면 힐링이 많이 되어서 평소에 그렇게 자주 생각 없이 걷는 편이에요.

## Q. 지금이 지나면 기억되지 못 할 수도 있는 시간 혹은 공간을 기록하는 것이 나와 무슨 연관 혹은 연속성이 있을까요?

은평구에 오래 살았고 어렸을 적부터 기억이 너무 많고 근데 이제 그런 기억은 점점 다사라져가는 공간들을 보면서 옛날 추억을 되살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 서운한 마음들을 좀더 채워놓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원래 과거에 내가 지내왔던 장소에 대한기억이 그대로 좀 있었으면 싶은 마음도 한편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마음도그렇고 제가 한 10년 정도 자취하고 집으로 본가로 돌아왔을 때, 예전 그 모습은 다 하나도 없고 아파트랑 한옥마을이 다 그새 지어졌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무리 과거 사진, 옛날그 근방에서 찍었던 사진을 봐도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련되게 바뀐모습이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옛날에 내가 뛰어놀던 과거 그 기억이 이제 다 없구나' 서운하기도 하고 해서 (아카이빙) 이 일을 만나기 전부터 은평구를 산책하고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좀 찍어보면 나한테 좀 의미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전시회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마침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를 만나서 더 그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